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5호 [무제 제23127호] 주제99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을 위한 전민적대단결 10대강령》을 4월 23일 베네수엘라 칸파라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전민적대단결 10대강령》을 도미니카 쉐라다다출판사에서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벨라리아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1부 항일혁명편 8권을 벨라리아에서 출판하였다. 회고록발행식이 4월 29일 크라프 6인쇄소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김일성주석탄생 100돐 기념 벨라리아전국준비위원회, 벨라리아공산주의자동맹, 크라프 6인쇄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벨라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파나스 이와노프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국제로동운동의 거장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상은 진보적인류에게 있어 커다란 보물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백과전서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김일성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 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들은 찬양하였다. 그들은 회고록출판이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펼쳐진 조선인민과의 편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 주제99 (2010)년 6월 2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내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

## 김매기전투에 추동하는 포전집중정치사업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미제와 남조선피역적제당에 대한 치맛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꿰이며 김매기전투를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나라 협동농장의 김매기실적은 현장에서 당일군들이 펼쳐보이는 포전집중정치사업의 위력으로부터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동물부편이면 특색있게 만든 포전방송기계를 가지고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집중적인 포전정치사업으로 전투장들을 들끓게 하는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김매기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 기세 좋게 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각지 당 조직들에서 황해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김매기전투에 추동하는 포전집중정치사업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도화선이 되게 화신식으로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실천을 통하여 로병공로자강연강사들로 무어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의 위력을 체험한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부는 올해 영농전투에 들어서면서 시, 군로병공로자강연강사들의 경연회를 조직하였다. 강사들을 불러 일으키고 온 도에 농사열풍, 농촌지원열풍이 휘몰아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 하며 열정에 걸쳐보이는 시, 군로병공로자강연강사들의 강연선전대활동은 참으로 강요가 컸다. 이들의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높은 강연선전대활동에 고무된 안락군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김매기

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명도업적단위인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김매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직외강연강사들로 강연선전대를 꾸리고 집중강연선전대활동으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김매기전투에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포전집중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려나가고고있다. 도안의 명도업적단위들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이들이 진행하는 집중강연선전대활동에 고무된 선진시 미곡협동농장과 수안군 평원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풀이 나오기 전에 김을 여러번 돌려떨 높은 목포를 세우고 김매기전투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예술선동은 대중을 김매기전투에 고무추동하는 위력적인 선동형식이다.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감화력이 큰 예술선동형식

##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광범히 연구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년이 되었다.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는 사상사업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는 불멸의 저서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그 파향성과 진리성,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광범히 연구보급되었다. 절세위인의 고전적로작은 구비아카데미출판사, 라오스국가출판사, 수리아 다르 디마스출판사, 네팔 삼자나출판사, 탄자니아 리프인쇄소, 나이지리아 에누구출판사, 베네수엘라 칸파라라출판사, 메히코인민사회당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출판기관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단행본들은 머리말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작이야말로 현실세계는 물론 앞으로 영원히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교과서이며 강령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신문 《볼레비즈카야 브라우다》, 네 팔신문 《스리미끄》, 우간다신문 《더 모너러》, 에리트림문 《알 마싸이아》,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루드》, 기네통신, 오스트리아의 아파통신, 이탈리아의 지파 아베르파방송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파키스탄선전선협회, 주체사상연구소 조판자나전국조직위원회, 베루조선전선문화협회, 벨라리아조선선전협회의 불배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을 전문과 요지로 널리 전하였다. 또한 네 팔잡지 《비다트리 싸마차트》, 인디아신문 《싸마차트 포스트》, 파키스탄신문 《나이에 와질트,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베루, 에스빠냐 등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로작이야말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귀중한 재부, 사회주의사상사업의 대강,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대한 폭탄선언이라고 하면서 로작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담화, 문문 등을 발표하여 이전 소련과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사상사업을 홀수하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모든것을 변질시키게 하며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로작을 통하여 사상사업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로써 사회주의운동의 전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시였다. 로작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의 위치와 역할로부터 사상사업의 기본입부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인디아, 방글라데슈, 에리트,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베루, 에스빠냐 등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로작이야말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귀중한 재부, 사회주의사상사업의 대강,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대한 폭탄선언이라고 하면서 로작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담화, 문문 등을 발표하여 이전 소련과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사상사업을 홀수하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모든것을 변질시키게 하며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로작을 통하여 사상사업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훌륭한



선군시대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가는 수도건설자들의 영예와 긍지 끝없다  
-평양시건설관리국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특필

## 석탄은 공업의 식량

◇ 지금 석탄공업부문의 로동대중이 결사의 의지를 안고 석탄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본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 지도를 받은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2. 8직동철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기세 높고 앞장에서 내달리고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특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탄광들이 총공세의 분투기로 들끓고있다.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찾았던 중앙예술선동사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탄광로동대중의 영웅적인 투쟁에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비록 생활상에는 있어도 석탄만 더 생산하여 대고조폭풍에 이바지할수 있다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애국헌신으로 빛내야 하겠다.》

◆ 지난해 8월 2. 8직동철년탄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규모화력발전소와 금속공업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현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석탄이 전기이고 쌀이며 강

성대국이다. 석탄이 많아야 주체철과 주체철유, 주체비료가 풍부해 쏟아져나올수 있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예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수 있다. ◇ 전당, 전군, 전민이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을 지원하는것은 곧 자기 부문을, 자기 단위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자기의 행복찬 삶을 꽃피우는것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것이다. 탄광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탄부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석탄의 덕을 입지 않는 단위는 없다.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석탄공업부문을 성심성의로 지원하며 전제 인민이 석탄생산량을 늘이는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탄광로동대중에게 하나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해 애야 한다. 석탄을 최대한 파괴적으로 리용하고 극구 아끼며 전기절약투쟁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 대고조폭풍의 새 소식 실리있는 저력차발전소가 일떠섰다

만포시에 출력이 크고 높은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저력차발전소가 일떠섰다. 장자강하류에 새롭게 일떠선 연하발전소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탁원의 만리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만포시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정체이며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소형발전소는 산간지대이건 평야지대이건 틀이 크지는 곳에는 어디에나 다 건설할수 있습니다.》 연하발전소는 물이 흐르는 곳이하면 어디에나 건설할수 있는 저력차발전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몇해전 만포시를 천지지도하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시인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만포시인민들은 한사발같이 떨쳐나섰다. 공사의 나날 수백m나 되는 가물막이제방이 때이던 큰물로 하여 순간에 떠내려가고 간고한 노력 끝에 형성해놓은 기본연계기가 매워지는 등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을 때에도 돌격대원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대형물들을 만들어 들을 채운 다음 저력대원리를 리용하여 강물에 열거는 기발한 착상을 실현한 《연하식가물막이공법》을 창조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미 발전기 제1호기가 조립되어 전력생산의 동음을 새차게 울리고있다. 아직형언제를 기본연계로 하고 보조연계를 형성한 이 발전소는 유효효율이 수m밖에 안되는 특색있는 중소형발전

한 경 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지난 40여년간 당신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령도하여오셨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당신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그의 승리적전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원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당신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장하시고 조선로동당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을 령도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0년 6월 8일 메히꼬시

#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이 중요한 문건은 조선의 북과 남의 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에서 중요한 조치로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신께서 선언을 마련하신 업적과 그가 가지는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당신께서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와 세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이쎬호 필리쁘  
2010년 6월 4일 프라하

# 조선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북과 남이 공동선언을 채택한 력사적인 사변이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인민과 모든 평화호력자들은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수 있다고 확신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신할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선언에 지적된 모든 구상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것을 해놓으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측이 선언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많은것을 할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여 북남공동선언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유가노브  
2010년 6월 15일 모스크바



공장에 있던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평양기호공공장에서- 최충성 적음

#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향유자로

## 로 동 법 령 발 포 기 념 일 을 맞 으 며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법령이 발표된지 64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해방후 인민적인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노예로동을 영연히 끝장내고 근로인민대중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법령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조선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고 로동자들을 가혹한 식민지적인 로동조건에서 해방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국가건설의 핵심적부대로서 더욱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읍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초보적인 로동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공장과 탄광, 광산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쥘을 벗어던지고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노예로동제도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이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 10대강령》에서 밝힌 노예로동의 철폐와 8시간로동제설치, 로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제34 (1945)년 11월 하순 어느날, 평양탄광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스병세가 심하게 나는 강방이침지작업장에도 들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노예로동을 영연히 끝장내고 근로인민대중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법령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조선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고 로동자들을 가혹한 식민지적인 로동조건에서 해방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국가건설의 핵심적부대로서 더욱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읍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초보적인 로동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공장과 탄광, 광산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쥘을 벗어던지고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노예로동제도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이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 10대강령》에서 밝힌 노예로동의 철폐와 8시간로동제설치, 로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였다.  
로동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들은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력사적인 로동법령발포!  
이는 오랜 세월 온갖 착취와 무권리 속에 수난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해준 커다란 사회적번영이었다.  
로동법령이 발표되자 전체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것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였으며 평양과 함흥, 청진과 해주를 비롯한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로동법령을 지지하는 군중시위와 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군중시위와 경축대회가 펼쳐진 나날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적인 로동법령을 마련해 주시여 보람찬 로동생활과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신 어버이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었다.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6월 24일 발표된 로동법령을 접대 지지하며 기쁨에 넘쳐 장군님께 편지를 씀니다. ... 오래된 애송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우마와 같이 시달려오던 우리들 로동자 및 사무원을 해방하는 위대한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대하여는 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

우리들은 장군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에 적극 참가하여 생산돌격운동을 맹렬히 전개할것을 맹세합니다.  
기쁨에 넘치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여 삼가 장군님께 경의를 드리는바입니다.》

로동법령이 발표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생산부문과 사무기 관들에서 로동법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주제35 (1946)년 6월 24일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보조대책을 세우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며 정양소, 휴양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이 온 나라의 명승지들에서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시었다.  
그나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며 로동법령집행정형을 료해하시며 오랜 세월 고역에 시달려온 우리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성진태강소 (당시)를 찾으며 강철이 아무리 중해도 귀중한 우리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하시면서 원시적인 원형로를 송두리째 폭파해버리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로동제도에 참수부르려고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행동이 철저히 실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로동법을 새로 제정하도록 하시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다 법적으로 담보 해주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무로의 무료유체와 무상지료제,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정양양제 등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에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값있는 삶을 누리고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뜻깊은 로동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묘의 인사를 드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 용 진

# 선군혁명령도의 날에

## 값 높 은 평 가

몇 해 전 가을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건설자들이 새로 건설한 도로를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짧은 시간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선군건설자들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로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건설한 선군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이 도로의 그 어느곳에나 력력히 깃들여있었다.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또 하나 일떠세운 선군건설자들이 너무나 대단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도로포장을 회한하게 아주 잘하였다고 거듭 칭찬하시였다.

그의 값 높은 평가는 내 깊이 관심하신 문제  
주제 97 (2008)년 1월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도로포장을 회한하게 아주 잘하였다고 거듭 칭찬하시였다.  
그의 값 높은 평가는 내 깊이 관심하신 문제

조국의 통일변명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선군건설자들이 거둔 성과라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들을 시대의 본보기로 창조하는 투사들로 높이 내세우시시는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 크나큰 기대의 표시였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군인들이 부강조국건설의 강령한 전위대로 역세게 자라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머지 않아 이 땅위에 강성대국승리의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 야말것이다.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과 문화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료해하심대 이어 식생활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들리시었다.  
식당에 들리시여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판단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성의껏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음식감들을 다시 차례차례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은 훈련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열기를 제때에 보충할수 있도록 식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할데 대하여 다정히 일깨워주시었다.

훈련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라 할 때에 찾아오는 인민군인들의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들모두를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용사들로 키우시려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를 우리들은 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회색의 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긍지와 행복감으로 더욱 부풀어올랐다.  
부대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병사들로부터 민형, 만누리 병리우며 그들의 생활을 친언어처럼 돌봐주시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관이 될것은 결의를 다지였다.  
인민군인들을 사랑하는 아들딸들로, 참다운 선군혁명동지로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언어비정상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은 세상에 높이 떨치고 있는것이다.  
림 정 호

# 오늘의 총진군에서 높이 발휘되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반세계급의식

오늘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이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분노와 적개심, 열적의 기개를 천백배로 폭발시키고있다.  
제국주의 반동들과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렬한 립장과 태도는 투철한 반세계급의식의 발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의식을 높여야 사회주의 제도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으며 혁명에서 원칙을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적들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벌어지고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행동과 경제적봉쇄책동, 사상문화적침투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원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세계급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반세계급의식이 강한 인민에게 있다.  
우리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투철한 반세계급적립장을 지닌 혁명적인민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계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을 깔없이 증오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급이라

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인민은 없다. 오랜 기간 미제를 비롯한 계국주의반동세력과 직접 맞서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런 혁명적기치는 체질되었다.  
장구한 투쟁의 길목속에서 역세여진 우리 인민의 결렬한 반세계급의식은 오늘날의 대고조진군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새로운 시대적환경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침략과 압력, 제제소동도 반세계가 될선 넘는 격렬한 반세계급의식을 발휘하여 단련되도록 단련된 우리 인민을 절대로 놀래우거나 굴복시킬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적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들고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쏟고있는것처럼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다. 군력이 강해야 적들을 제압하고 그 어떤 침략책동에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 총대중시, 군력강화가 당들이 감히 우리 조국땅위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원수들을 써도 없이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림으로써 유화전략으로 나오는 계급의 추대를 역세게 버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제대미우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에 게 조선사회의 본래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일념을 안고 부진건설을 다그쳤으며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계국주의의 《평화전략》에 말려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킬 때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손에는 마지와 낫을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사랑 없이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부분 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였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총대중시, 군사중시, 계급중시, 혁명중시, 애국중시, 충대의 위력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쳐온 반세계적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계국주의자들과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을 펼쳐올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미제와 총결산을 하고야말 열적의 의지를 안고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적력대결들이 감히 우리 조국땅위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원수들을 써도 없이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림으로써 유화전략으로 나오는 계급의 추대를 역세게 버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제대미우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에 게 조선사회의 본래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일념을 안고 부진건설을 다그쳤으며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계국주의의 《평화전략》에 말려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킬 때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손에는 마지와 낫을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사랑 없이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부분 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였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총대중시, 군사중시, 계급중시, 혁명중시, 애국중시, 충대의 위력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쳐온 반세계적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계국주의자들과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을 펼쳐올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미제와 총결산을 하고야말 열적의 의지를 안고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적들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여 혁명적 원칙을 버릴 인민도 아니며 원수들의 제제와 봉쇄가 지속된다 하여 사회주의의 길에서 물러설 인민은 더욱 아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신념의 마음속이다. 고마운 사회주의의 길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으며 우리 식, 우리의 사회주의생활보다 더 좋은것이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조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이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려는 결연한 립장과 의지를 지니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래를 계속 살려나가고있다. 경제건설을 하고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썩어빠진 부르주아생활양식, 계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기백과 향만에 넘쳐 생활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다. 오늘 누가 보지않던 사회주의의 조국 통일변명을 위하여 깨끗한 립성과 의지를 버치지 않는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피와 살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마다 꽃피나

고있다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 리 식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정도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의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끄떡없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의 길로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의 투철한 반세계급의식은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막아보려고 악랄한 제제와 봉쇄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계국주의자들의 제제와 봉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의 힘, 우리의 식으로 이 땅위에 기어올라 돌고 돌고 변형하는 강성대국을 보관할 힘으로 앞장서서 선군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오늘 누가 보지않던 사회주의의 조국 통일변명을 위하여 깨끗한 립성과 의지를 버치지 않는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피와 살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마다 꽃피나

철생산체계의 완성과 CNC기술에서 첨단을 돌파하는 사면들이 일어나고 올해에 주체철수, 주체비료폭포가 쏟아지는 대정사들이 펼쳐졌것은 계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제봉쇄와 체제탄압도 우리 인민의 전진을 멈출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겠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기상이다. 이런 영웅적기개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강성대국의 승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는 우리 인민에게서만 발휘될수 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반기를 보충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최첨발전군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끓어넘치는것도, CNC기술의 패권을 쥐고 더 높이 비약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도 바로 이런 신념과 의지이다.  
투철한 반세계급의식을 지닌 인민은 언제나 불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결렬한 반세계급의식으로 심장의 피를 더욱 끓여내 계국주의자들과 미제의 온갖 반동들을 영멸시켜 줄어 버리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변형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 정 수

# 선구자의 기상 떨치며 총공세의 앞장에서 기세드높이 전진

## 김책제철련 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

###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기적을 창조하며

동승기

###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기 위해 총공세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기세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 게 보낸 편지에서 결의한대로 1. 4분기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대대적 달랠이와 함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기세를 앞장서서 이룩해내자.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기세를 앞장서서 이룩해내자.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기세를 앞장서서 이룩해내자.

이제 할 전진공정... 모두가 생각에 풀풀하며 고개를 수그린채 누군가 특별한 《묘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지속되는 무거운 침묵을 깨며 연합기업소당 일꾼이 일어났다. 《은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김철이 일하는 해로 되게 하겠다고 선포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한단 말입니까, 심장이 커야 합니다. 대담하게 달려들어 이번 일을 성사시키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시다.》 당일꾼의 이런 전투적소호에 화답해나선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조직사업이 진행되자 신심에 넘쳐 각자 자기가 맡은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강철 22직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진불발의 의지를 안은 일꾼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전투에 전진하였다. 공장기사 최명진, 카바이드 작업반 반장 리철동동무들은 거둬들이는 실례에도 주저하지 않고 험악한 자제를 차례로 생산하기 위하여 이 악하게 노력하였다. 연합기업소의 기술일꾼들도 이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합세하여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산소전로가 무섭게 용을 쓰기 시작하였다. 총천하는 화광, 세찬 열풍, 눈부시게 휘부러지는 불보라... 온 기업소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3호로의 조작공들이 용해공정을 원만하게 추진시키었으며 조로공, 철단공들은 긴급한 정황속에서도 배심있게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강종생산의 돌파구를 열었다. 강련분석결과가 나오자 온 기업소가 환희로 들끓었다. 성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절대 불변의 충성을 지니고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만만치 않은 고해미 강성대국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이처럼 장한 로동계급이 있어 10월에도 향한 우리의 대전군은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될 것이다.

대추전장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연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둥에 출현한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부터 전투현장의 곳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영웅들이다.

각지에 보내는 철강재는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것이 대고조전기를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 줄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때 현장에 나와서던 연합기업소 부지배인 리만년동무가 손해를 써가며 힘있게 말하였다. 《수송은 넘쳐나라, 이것이 우리 운수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배심입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그 결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신심도 좋고 작기도 좋다. 기적소리 높이 울리는 구내기관차들과 드디어 뛰어나오는 로동자들의 모습에 10월에도 달리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열정이 비껴있었다. 구내기관차들은 또다시 자랑들을 달고 철의 도시를 누비고 다닌다. 장엄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예극헌신의 강령을 따라 강성대국으로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 로동계급의 역전 기세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한달전, 연합기업소와 강철 22직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대고조전투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제철의 강종생산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어려운 생산과제가 때문이었다. 부족되는 철기재들, 완전히 새로 꾸리다실이



간주하며 결사적으로 지켜가는 여기에 당과 인민의 현연이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광활한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 날의 자랑찬 시대상이 그대로 비쳐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대고조시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인격은 그가 쌓은 실적의 높이에 따른다. 완강한 실천투쟁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조국의 기적속에 남아있는 사람, 시대가 부르는 위훈자가 되자!

###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기도 하고 때로는 연한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민간의 오가며 하루에도 몇차례씩 예술선동활동을 진행하는 이들의 수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들에게는 창작시간과 예술활동시간이 따로 없다. 밤새워 새 작품들을 창작하고도 남지 않는 이들은 예술선동들을 고무해주고 현장에서 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 직장에서 우리는 직장의 한 일꾼이 보여주는 현연의 시를 보게 되었다. 온 용광로 안에서 지은 《생명》이라는 제목의 그 자작시는 연합기업소에서도 방송되었다. 생명이라는 제목의 그 자작시는 연합기업소에서도 방송되었다. 생명이라는 제목의 그 자작시는 연합기업소에서도 방송되었다.

그대로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 많은 김철을 나라는 생명선으로 불려주며 대고조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고 로동계급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성명으로 간주하며 결사적으로 지켜가는 여기에 당과 인민의 현연이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광활한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 날의 자랑찬 시대상이 그대로 비쳐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대고조시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인격은 그가 쌓은 실적의 높이에 따른다. 완강한 실천투쟁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조국의 기적속에 남아있는 사람, 시대가 부르는 위훈자가 되자!

### 총산투쟁의 앞장에서 선 위훈자들

원호식현속조피기가 기술차계 들어가는 생산현장도 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주 주신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높이고있는 김철의 위훈자들은 날마다 위훈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몇몇하게 성장한 재대군인들 지난 3월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 산림보호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보호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한그루의 나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시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귀중한 밑천의 하나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산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산림보호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림보호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림감독원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림에 수습년동안 풀베어 조성해놓은 귀중한 산림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도록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울창한 수림을 잃어 산림이라고 하여도 병해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크므로 미미부류의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야 한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도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사들음이 떨어지면 풀을 들어 노획한 보람이 없게 된다. 산림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갖 심은 나무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 정신력을 발동하면 기적이 창조된다

송전선건설철탐기초공사물자를 싣고 2건설대 로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던 초급당비서 서성철동무는 한 로동자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부모처자들에게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짐을 떠나 오래동안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그들모두의 공통된 심리였다. 가족들과 상봉이 대중의 정신력을 비상히 폭발시킬수 있는 계기점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사업소에 들어온 후 가족들의 모임을 열고 건설장에 펼쳐지고있는 영웅적투쟁화풍을 생동하게 전하면서 격려를 한껏 격동시켰다. 사업소가 최근시기에 이룩한 눈부신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에 대해 이쪽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대답하고있다. 송전선건설자 한사람, 한사람을 산정의 《수려계》들로 역세게 키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밀거름이 되어준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노력이 컸다. 그 일단을 우리는 여기에 펼친다. 작업이 한곳에서 아니라 사업소와 수리리, 지어는 수백리나 떨어진 산정에서 진행되는 특수성으로 하여 이 단위의 많은 로동자들은 오래동안 집을 떠나 생활한다. 초급당위원회일꾼들은 단위의 이런 특성에 맞게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마음파의 사업, 감정파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지난 5월, 청천강방탄철탐기초공사장에서는 2건설대 로동자들이 가족들과 상봉하는 자들은 평정이 펼쳐졌다. 사업소가 생긴이래 처음 펼쳐진 화풍이었다.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일꾼들과 함께 후방

### 한곡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전 출근길에서였다. ...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경쟁의 본래 ... 문득 어디선가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의 선율이 나의 귀전에 울려들었다. 유치원꼬마들이 대렬을 지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대렬이지만 아직은 손발의 움직임이 각각이어서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하나같이 쟁쟁하고 박력이 있었다. 최첨단들과, 너무나 어린 저 첩첩은 아이들이 그 말의 참뜻을 다 알거나 하는지. 그러느니라 저도모르게 생각

### 한곡의 노래를 들으며

이 깊어진다. ... 에게만 과학자, 기술자들의 입에만 오르면 최첨단들과는 말이 오늘날은 내 조국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울리고있지 않는다. 과학연구기관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그 어디서나 최첨단들과의 열정이 일고있다. ... 이제 첩첩은 유치원꼬마들의 입에서까지 최첨단들과의 노래가 스스럼없이 울려나오는 오늘날의 이상한 현실은 얼마나 격동적인것인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대적경, 대박약을 이용해가는 내 조국의 창조자의 숨결이 그대로 선율이 되자 되어 내 가슴에 평하게 울려나온다. ... 유치원꼬마들의 노래소리는 멀어지고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나의 흥벽을 더 세차게 두드린다. ... 월 권

출력된다. ... 《돌과하라 최첨단》. 그것은 바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하루빨리 세계를 더디고 올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심장에서 분출하는 전군민적대합창곡이 아니겠는가. ...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유치원꼬마들의 노래소리는 멀어지고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나의 흥벽을 더 세차게 두드린다. ... 월 권

가 밀고나가자고 하자 일부 사람들은 설사 건설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덕을 보기가 힘들것이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온 기업소구내를 샅샅이 파헤쳐서라도 물품을 찾아내고 반드시 양어장을 건설해야 한다는것이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결심이었다. 일꾼들은 물원천을 찾기 위하여 하루일이 끝나면 전지불을 비쳐 들고 온 사업소구내와 주변을 두들겨본다 하며 무진 애를 썼다. 물원천을 찾고 착공의 삽을 박은 때부터는 밤 공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땅에 걸여있던 일꾼들, 그에 감동된 로동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그들의 땅을 바쳐 꾸려놓는 양어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은 얼마나 의의깊은것인가. 사업소에 꾸러진 후방생활토대를 돌아보라하면 하나하나가 로동자들이 먹을 불수 있게 실리가 나게 꾸러졌듯이 특징이다. 수백m에 달하는 버섯재배장과 청량유료생산기, 대형지구에 건설한 토끼우리들과 구내식당의 식탁에 오르는 콩국과 산우에도 종업원들을 위한 이곳 일꾼들의 헌신적부무정신이 그대로 비껴있다. 이렇듯 종업원들을 위해 진 정을 쏟아붓는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을 단결되고 전투력있는 단위로, 화목한 전구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법이다. 가까이 앉았어 정이 통한다고 대중을 움직이려면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심장을 두드려야 한다. 이것은 송전선건설사업할 때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대 양어장건설을 통이 크

# 부강조국건설에 피끓는 청춘을 바치는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랑만의 노래

##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글작품집 《백두여 너를 닮으리》중에서

지난 5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았을 때 경이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발전소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치하하시면서 그들이 창작한 문예작품집들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가운데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조직 5년기념 글작품집도 있다. 본사편집국은 경이하는 장군님께서 체형자태들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사상감정이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글작품집중에서 일부를 전한다.

### 랑의 부름에 영월한 백두청춘으로

불러주시었다 우리 장군님 백두의 빛, 백두의 정신 심어주시려 백두산처럼 굳게 세워주시려 우리 청년들을 성스러운 혁명전투로 불러주시었다

불뛼는 교정에서 키운 꿈 다식하신 어머니사랑도 그림자만 장군님 부름에 청춘의 심장으로 대답하 자고 내 여기 백두로 달려왔나니

누구나 기다리지는 10월의 대추전장에 선군청춘의 이름으로 빛나는 만년대추의 기념비를 안고 가자고 낫과 밭이 따로없는 이르는 전투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원의 고귀한 그 칭호 심장을 꿰게 한다

조선혁명의 첫 세대들처럼 1950년대 리수복영웅처럼 1990년대 김광철, 김영조영웅처럼 청춘의 심장 조국에 바치리라

아, 우리 쌓은 원광된 인제우에서 기쁨에 넘쳐 계절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 그리며 내 달리고 또 달려리라

김정일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백두산을 안고 백두의 그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영월한 백두청춘으로 빛나게 살리라 평양시려던 6세대 대원이었던 원정철

### 경이하는 장군님 휘하에

꿈푸른 희망안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로 달려오던 그날 백두산을 수놓은 성스런 돌격대기발앞에서 내 심장으로 다지던 선서가 있다 경이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자욱자욱 힘겨웁던 《고난의 행군》길에 걸음걸음 땀에 젖던 강행군길에 7년대의 나팔소리처럼 천만심장의 피를 끓여준 아, 그 불멸의 메아리

소중한 이 땅의 모든것을 다 맡긴 부름 총잡은 수호자들의 의무도 창조의 마치를 든 돌격대원들의 의무도 오직 이 하나의 선서에 실려있거니

더욱 풍요하고 아름다워질 래일 위해 강성대국에서 살 아이들의 꿈을 위해 조국안에 다진 목숨같은 선서에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심장을 엮

### 백두의 봄을 우리는 가꿈다

산은 산마다 골은 골마다 온통 흰눈이 뒤덮이고 새난 눈보라는 대지를 얼구건만 건설장은 들끓기만 한다

봄은 여기서 시작되는가 사시정월 흰눈이 이고 눈이 솟은 백두산 그 자락아래 일떠서는 선군청년발전소 열여섯을 대지를 흔드는 건설의 장쾌한 음향소리에서 봄, 봄이 오는 그 소리 듣기에도 완전하다

왕복 30리길을 벌써 세번째로 달렸으며 대를 통해 전해 받은 봄을 갖는 처녀의 웃음어린 그윽한 저 눈빛... 뒤집새라 연방 함마를 휘두르는 청년의 민중적인 저 모습...

아직은 눈보라치는 계절인데 어머야 아예 옷을 벗어제끼고 피고 달리는 근육진 몸들에 땀방울이 아지랑이 피어올리는 땀방울...

아, 파스함을 불러 봄을 불러 더 아름답게 꽃피날 백두대지를 위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청춘도 희망도 아낌없이 다 바쳐가거니

사상도 뜻도 마음도 하나더라

있다 경이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이 하나의 신념을 숨결로 지니고 이 하나의 신념으로 뉘를 불태우며 후대에 앞 부끄럼없을 승리와 위훈으로 장군님을 받들리라 응위하리라

찬 눈비에 언박을 맡아먹으면서도 《사람회를》의 역사를 창조하면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저와 동요를 모른 우리의 힘과 열정, 지향도 장군님 위한 삶에 뿌리를 두었거니

청춘의 꿈과 희망, 심장을 다 바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우뚝 세울 때 장군님 우러러 터치는 만세속에 조국은 듣게 되리 역사는 기록하리 백두청춘들의 신념의 목소리 경이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정치부장 김삼민

항일빨찌산 청춘들처럼 살고만싶은 소중한 우리 꿈을 백두대지에 펼쳐주신 그 이름도 금지높은 선군시대 빨찌산청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으로 불러주시는 장군님 한분만을 따르고 만드는 길에

그래서 아니라 일을 해도 힘들 줄 모르고 바치는 것이 너무나 작아만 보여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와 낮에 밤을 이어대며 땀속에 몸을 잠재내 언박도 달게 든것은...

뜨거운 이 마음들에 떠날래 청년 그 이름으로 발전소가 우뚝 설 때 마음에 스며드는 봄기운처럼 진기는 집집에 찾아들리라 창가마다 웃음꽃 봄꽃처럼 곱게 곱게 피우리라

아, 봄날의 눈썹소리마냥 발전기의 동음소리 장쾌히 울릴 때 이 백두대지는 얼마나 밝아질것인가 아름다운 그 선정에 이끌려 봄은 여기서 떠나지 않리 봄은 여기에 영원히 깃들리

정령 가슴마다 넘치는 금지안고 우리는 왜대한 자랑한다 장군님 키워주신 백두의 청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의 자력으로 아, 우리는 봄을 가꿈다 백두대지의 영월한 봄을 가꿈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장 리금철

### 총포성 없는

총포성은 울부짖지 않아도 여기는 작렬하는 격전장 우등불로 밤을 태워 낮과 밤을 이으며 최후로 육박하는 불타는 고지

무쇠팔뚝 휘두르는 기동기운전공 잡시나마 중기압철 놓은적 있던가 흠을 담아 얼음판을 달리는 눈발매들 순간이나마 돌격을 멈추지 않던가

천길 땅속에서 24시간 기관총의 불을 토하는 착안명수들은 얼어든 미아기를 품에 녹여 틀어쥐며 승리로 부르는 원광방송원은

하루세끼 따끈한 식사를 지고 벼랑을 뚫고 내리는 《남강마을 너들들》은 어기영차 힘합쳐 휘둘러 매우는 땀젖은 지휘관, 대원들은

나 또한 정대와 함마를 틀어쥐고 결사전의 양상에 서있다 뿌리깊은 썩바위를 들춰내며 알길막는 청바위를 가부시며 앓다문 입술로 튀고 걸고 거머

보이라 심장을 짙는 얼음장을 헤치며

### 참마의 메아리

쟁-쟁-쟁-쟁- 함마의 메아리 백두의 정신안고 청년전위들의 마음담아 더 새차게 울려라

백두청춘들이 울리는 새찬 함마소리 백두에 울린다 하늘땅 뒤흔든다 쟁-쟁-쟁- 쟁-쟁-쟁- 쟁-쟁-쟁- 쟁-쟁-쟁-

### 생각많은 건설장의 밤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 오면 누구도 쉬이 건설장을 뜨지 못하네 병사들이 일떠세운 발전소마다 사방의 자욱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 우리들이 건설하는 발전소건설장을 문득 찾아오시면 아, 찾아오시면 그 생각으로 비어둘수 없는 건설장의 밤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의 하나로 청년전위를 내세우시며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들을 안고계시는 아,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어서

### 소

저우는 하루해도 하나의 소원을 남기며 가고 동트는 새날도 하나의 소원을 안고서 오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숫는 해를 바라보아도 그리울안고 펼쳐온 위훈이 가슴 한껏 부풀게 하고 그리울안고 새겨갈 새 기적이 가슴 한껏 설레게 하거니

날이 밝고 저우는것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조화라면 아, 심장에 스스로 물노니 우리 가슴 이리도 환희에 젖을것인가

난생 처음 눈보라에 손발은 얼길 때 대홍수에 생활가설들이 떠내려갈 때 비판을 모른 락관의 노래 부르며 영광넉친 승리만을 아로세진 위훈의 원천이 정령 어디 있었던가

눈보라치는 전선길의 모닥불가에서

오늘도 울린다 건설전투장으로 나를 부르는 지휘관의 힘찬 구령소리 어-어-어-어! 앞으로 갔!

### 어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 격전장에서

언제를 지켜낸 무명의 전사들을 들어라 한걸 불꽃으로 사라져도 전대의 돌격로를 열어 불발폭약을 터치고야만 애끓은 청춘의 거대한 폭음을

과연 그 누가 격전의 마당에서 비집혔던가 장군님 틀어쥐신 《백두산》전에서 백두의 투사로 선군의 용사로 쏘면 쏘는대로 날아가고 명중하고 승리하는 부대 백두산부대!

오, 선군! 오로지 선군의 신념으로 불타는 이 나라의 새 세기 청춘들이 장군님따라 백두전장을 누비며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선군승리를 펼쳐가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너는 진정 강성대국건설의 최후돌격전의 양장에서 최고사령관의 별동대의 영예 만방에 떨치리라 떨치리라! 황해남도려던 2세대 리철국

너는 진정 강성대국건설의 최후돌격전의 양장에서 최고사령관의 별동대의 영예 만방에 떨치리라 떨치리라! 황해남도려던 2세대 리철국

### 환

강성대국건설의 교향곡인듯 장쾌하게 울리는 발전소건설장의 동음소리 더해주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정답게 울리는 청이다 한삼만 더!...

### 우

우리 일터 건설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말하겠지 하늘아래 첫 동네 친구의 밀밭속에 선군청춘 이름으로 발전소 세우며 장군님 구상을 꽃피워가는 돌격대원 우리모두 쌍둥이같다나

돌격대복을 하나같이 차려입은 튼튼한 그 모습도 쌍둥이같지만 깎짝씩 일을 해제쳐가는 일솜씨도 분명히 쌍둥이같고

### 심

들어보자 동무여 오늘 굴진은 몇m인가

### 가

나타나 밤이나 기적과 위훈으로 불꽃되는 건설장 금시라도 건설장을 찾으시면 창조로 청춘의 삶을 빛내이는 우리의 모습에서 못내 기뻐하시게 축원의 마음으로 간절한 아, 간절할 그 생각으로 들끓는 건설장의 밤

### 원

자신께서는 언 제기발을 달게 드시면서도 북방의 추위속에 발전소 세우며 우리 청년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마안신》 송부를 보내주신 장군님

자신께서는 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청년들을 믿기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맡기셨다고 장군님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그대로 청년영웅서사시를 넣은것 아닌가

머지않아 원공의 환호속에 동음소리 높이 울릴 발전소의 그 응자는 강철의 양기에 불하늘만 펼쳐주신 장군님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운 백두청춘들의 소원이 안아온 창조물이 거니

아, 기쁨속에 영월토록 젊어계시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여 강성대국의 무궁한 봄을 위해 부디 건강하시라 길이 행복하시라 강원도려던 4세대 김관준

### 어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 개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 삼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신심들이 전장으로 떠나는 백찌산들마냥 어깨총처럼 어깨삼을 하고 위훈으로 불타는 열망을 간직하며 돌격대원 우리는 전투장으로 나가거니

삼이여 너는 놓을수 없는 나의 무기 비록 총대는 아니어도 부강조국건설위업 이룩하는 그 길에서 선군청년전위된 사명감을 무겁게 해주는 너

삼남은 크지 않아도 산악을 들어내고 만년청춘연세 높이 세워

### 환

강성대국건설의 교향곡인듯 장쾌하게 울리는 발전소건설장의 동음소리 더해주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정답게 울리는 청이다 한삼만 더!...

어깨우에 무겁게 짊어진 질통에 보폭을 나란히 하여주는 맛달이에 한삼이라도 더 많이 어서 혼합물을 담으라는 재촉소리 삼을 쥔 손들을 바쁘게 한다 한삼만 더!...

### 우

우리 일터 건설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말하겠지 하늘아래 첫 동네 친구의 밀밭속에 선군청춘 이름으로 발전소 세우며 장군님 구상을 꽃피워가는 돌격대원 우리모두 쌍둥이같다나

돌격대복을 하나같이 차려입은 튼튼한 그 모습도 쌍둥이같지만 깎짝씩 일을 해제쳐가는 일솜씨도 분명히 쌍둥이같고

### 심

들어보자 동무여 오늘 굴진은 몇m인가

### 가

나타나 밤이나 기적과 위훈으로 불꽃되는 건설장 금시라도 건설장을 찾으시면 창조로 청춘의 삶을 빛내이는 우리의 모습에서 못내 기뻐하시게 축원의 마음으로 간절한 아, 간절할 그 생각으로 들끓는 건설장의 밤

### 원

자신께서는 언 제기발을 달게 드시면서도 북방의 추위속에 발전소 세우며 우리 청년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마안신》 송부를 보내주신 장군님

자신께서는 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청년들을 믿기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맡기셨다고 장군님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그대로 청년영웅서사시를 넣은것 아닌가

### 어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 개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 삼

총터라 왜놈처럼 나가는 백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당 어-어-어-어! 앞으로 갔!

장군님께 기뻐드릴 우리 신념 새겨있어 오, 정녕 어깨삼 그것은 단순히 삼을 뭉쳐 아니다 우리 장군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짐을 청춘, 우리가 나누어 댈것

그렇더라 《어깨삼!》 구령소리는 장군님 세워주시신 백두의 진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전투장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국이 크나큰 기대와 믿음으로 선군청춘, 우리를 부르는 소리!

황해남도려던 4세대 리효광

### 환

강성대국건설의 교향곡인듯 장쾌하게 울리는 발전소건설장의 동음소리 더해주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정답게 울리는 청이다 한삼만 더!...

어, 그 말속에 간절한 당부자 있다 아버지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드릴 기쁨넉친 원공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갈처럼 웃웃이 서있자 믿어달라 동무여 한삼만 더!...

성, 중앙기관대대 김만길

### 쌍

비판을 모르고 랑만에 넘쳐 노래하는 그 모습도 쌍둥이같다나

어이 다르랴 장군님 품에서 혁명을 배우는 우리거니 백두산기슭에서 첫걸음을 함께 떼고 위훈의 낫과 밭도 함께 이어오며 한해 또 한해 함께 나이를 엮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 우리 모두 쌍둥이!

평안남도려던 7세대 김연욱

### 물

원공의 그날도 그만큼 멀어지거니

명심하자 우리가 뚝는 1m, 1m는 완공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안고

아, 장군님 가까이로 가는 길임을! 평안북도려던 4세대 립철우

### 진

위훈에 또 불러주며 꽃향기 풍기네 아, 내 마음의 진달래 백두의 진달래

백두의 대지에 펼쳐질 불아성 진달래꽃처럼 아름답게 수놓으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원공의 낫과 밭을 우리러 더 활짝 피어나리 아, 내 마음의 진달래 백두의 진달래

황해북도려던 5세대 현복남

### 우

아, 장군님 꽃피우신 우리의 청춘을 노래하자

사랑도 희망도 청춘의 행복도 조국과 이어져야 값높은 삶이 라네 얼마나 좋은가 래일을 위해 살며 발전소건설로 장군님 받든 시절 아, 장군님 빛내우신 우리의 청춘을 노래하자

평안북도려던 5세대 립성국

##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참관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이 23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경이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사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발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단장인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해 대표단은 또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원들은 경이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선 대동강과수발전소의 전경을 부감하면서 절세위인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23일 미국 침략선 《서먼》호격침기념비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있는 대동강기슭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연설이 이어 미제의 만행체첩자인 전쟁로병 최순길, 동맹양화력발전소 초급직맹위원장 박명호, 평양철도건설려단 초급직맹위원장 남춘진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6.25에 즈음하여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은 들었으며 오늘도 전쟁전의 불기름을 물아오고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야말 복수심에 불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희합침략사건을 계기로 미제가 리명박적제당과 야합하여 부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멸적의



# 남조선당국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 민족화해협의회 공개질문장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의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서도 통일의 뜻을 하나로 모으며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있기에 지난 수년간 북남관계개선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에서 전혀 없는 경이적인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오늘 6.15의 위엄은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당에 의하여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총체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과 전쟁국면에 처해있다.

역적세당은 적반하장적으로 저러며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느니 뉘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하고 북남관계파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보수세당의 첩멸피하고 가소로운 책들은 민족과 함께 격분을 금지 못하면서 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풍광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북남공동선언에 대해 외면하고 부정하기만 아닐수 없다.

**2. 6.15 공동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거부하는것은 북남공동선언부정이 아니다.**

리명박은 2008년 3월 1일 《우리 민족끼리》가 어느 누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하는 리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리익을 옹호하는 리념이며, 《편향한 민족주의》니 하고 악랄하게 힐끗고 《우리 민족끼리》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을 뱉었다.

피괴일부배계리들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 《북의 선전주조》니, 《통일선전전략》이니 뉘니 하며 비방중상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의 리념을 최고의 경지에서 구현하고 집대성한 민족승명개척의 불멸의 가치이고 조국통일의 대명제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어느 누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하는 리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리익을 옹호하는 리념이며, 《편향한 민족주의》니 하고 악랄하게 힐끗고 《우리 민족끼리》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을 뱉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승고한 리념을 부정하는것은 곧 자기 민족에 대한 부정이고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6.15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쫓아내려는것이아말로 역적세당이 얼마나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미치광이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어느 누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하는 리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리익을 옹호하는 리념이며, 《편향한 민족주의》니 하고 악랄하게 힐끗고 《우리 민족끼리》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을 뱉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승고한 리념을 부정하는것은 곧 자기 민족에 대한 부정이고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6.15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쫓아내려는것이아말로 역적세당이 얼마나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미치광이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는 피괴세당의 후안무치한 꾀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맞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피괴보수세당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광의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를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행과 조국통일의 전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것이요 피괴역적세당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이아말로 회세의 대결망이고 호전망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맞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피괴보수세당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광의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를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행과 조국통일의 전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것이요 피괴역적세당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1.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한적이 없다는것이 사실인가.**

리명박은 2008년 2월 집권한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3.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을 운운할 제언이 있는가.**

6.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 사이에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활발하게 이어져왔으며 그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6.15의 흐름을 중단시킨것은 다름아닌 피괴보수세당이다. 리명박과 그 세당은 집권하자마자 북에 끌려다니는 《대북협상자세》를 바꾸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느니, 《원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

**4. 6.15를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

피괴보수세당은 집권후 《친북과 파벌》을 때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을 뒤늦게 범민련 남측 본부, 실천연대, 민주로총, 《전교조》를 비롯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리행을 요구하는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특히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에 탄압의 예봉을 들이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한 가혹수색과 조사, 체포, 처형농성을 미친듯이 벌이고있다.

역적세당은 6.15 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대해서도 남측대표단의 평양행사를 가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광의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를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행과 조국통일의 전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것이요 피괴역적세당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역적세당은 구차한 변명과 꾀변을 달랑남은 행위를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건어치워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유린말살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처하게 하여 오늘날의 위중한 사태를 몰아온 극악한 통일인의 원수, 민족반역자들은 명사의 철수를 면치 못할것이다.

주제 99 (2010)년 6월 23일 평 양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환영하는 군중집회가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집회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한상렬목사가 통일기를 들고 집회장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은 뜨거우 동요에 정을 안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집회에는 안경호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그는 한상렬목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과감한 실천으로 민족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반통일세력을 단죄하고 자주통일의 거대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의로운 장거라고 강조하였다.

통일이 없는 자주도 민주도 평화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애국애족의 의지를 안고 평양에 온 목사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이며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환희를 들끓던 6.15시대와 최악의 전쟁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의 정세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는 길에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지금 내가 입고있는 흰 두루마기는 문익환목사의 부인인 박승길장교가 문목사의 민주와 통일의 뜻을 이따고 나에게 준것이다.

나를 처음 이 옷을 입고 2003년 8.15추진대 평양의 룡라도에서 대표연설을 하였다.

오늘 북측동포들을 만난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으로 눈물이 난다.

문목사가 《불법》으로 방북하였던 때로부터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번에 나시신도 《불법》으로 분단장벽을 뚫고오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의 현실이 비참하기 그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괴일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피괴국회에서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것은 되기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도하

**6.15 공동선언발표 10돐 기념강연회 진행**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을 즈음하여 새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가 15일 새합민관에서 기념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장준성 새로조선공민중앙협회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분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판로로 전환되고 자주통일운동의 새 역사가 펼쳐져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거

두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이 집권기부터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로 몰아대면서 공동선언의 역사적의의를 깎아내리고 발악해왔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지난해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겪고도 전면없는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한 반역세당이 최근 저들이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북남관계를 전면파탄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족발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평안만 몰두한 호전광이라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들어 치던 미군장군에게 의해 신호순, 심미선 두 어린 녀학생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도 바로 이자의 책임기간에 일어났기라고 논평을 밝혔다.

론평은 특히 북측 《악의 축》으로 걸고드는 등 맹전적이며 대결적인 대조선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한 부서는 세계평화는 물론 조선반도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전쟁광의 남조선행각을 규탄**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사회선교대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기독교인연합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광 부위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였다.

《기독교인연합회》는 미국 전 대통령 부부가 22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기도회》에 강사로 나서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자는 책임기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킨 인 물로서 회회가 주최하는 《평화기도회》 강사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단죄를 주장하였다. 단죄는 특히 부부가 집권기간 대조선강경정책에 매달려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았다고 하면서 이면에서 《평화에 대해 듣겠다는 주최측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부위는 평화의 《전도사》가 아니라 책임기간 전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피괴역적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서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재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여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참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의 계획적인 침략흉계의 산물

올해는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0년 6월에 일어난 조선전쟁은 명백히 미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침략흉계의 산물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III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세밀히 작성한 계획에 따라 리승만때 국역독을 사족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고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직접 무력간섭을 개시한 그 침략행동을 무엇으로써도 변명하지 못할것입니다.》

조선전쟁발발 당시 미제가 이 전쟁이 마치도 우리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흑백을 전도하여 유엔에게서 끌고 가 거수기를 발동하여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꾀하였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도 저들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내고 있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갈수록 없듯이 미국이 제아무리 목청을 돋우어 떠들어대도 조선전쟁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그 준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도 저들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내고 있다.

미제는 1945년 9월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한데 관한 《조선》 제 1호를 공포하였으며 뒤이어 그 실현을 위해 《포고》 제 2호와 제 3호를 발표하였다.

미제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한것은 총칼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철저히 식민지화하며 남조선의 발전을 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

한 준비를 다그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제는 《군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전쟁준비에 리용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사회를 군사파쇄화하는 기본을 두고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강행하였다.

미제는 계획적인 조선침략전쟁준비를 위해 남조선에서 《군정》실시로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일정한 단계로 마련 한 다음 전쟁정책실행도구로서 피외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교묘하게 책동하였다.

원래 우리 나라에 통일적인 민주주의적독립국가를 세우는 문제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3개국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쓰미공동위원회가 조선의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시키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이러한 국제협약을 공인하지 위반하면서 남조선에서의 《군정》통치를 통하여 피외정권조작 음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47년 8월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미국 및 소련측 지역에 각각 파외정권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것을 떠벌이면서 쓰미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반동적인 피외정권을 조작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으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력량의 반대배격에 의하여 실패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이 문제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상정시키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그후 미제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내세워 남조선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부당한 《단독선거》를 단행하였다. 남조선의 절대다수 인민들의 반대로 《단독선거》는 파탄되었지만 미제는 피외정부를 끝끝내 조작하고야말았다.

이제 대해 미국도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에는 1948년 5월 제 1차 《선거》에 근거하여 남조선 《정부》는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 《독립》은 실제로 있어서는 미국령 명제도의 실질적인 연장이 지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대소공격을 위한 군사기지의 길을 강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즉시 명확하게 되었다고 써여있다.

침략전쟁준비를 조작한 미제는 침략전쟁준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였다. 미제는 우선 미국과 남조선, 일본 등에서 군사파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든것을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데로 지향시켰다.

1948년 미국무성은 이른바 《미국방조치의 성격》이라는 전쟁문건을 발표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선전하였다. 1949년 8월 미해군장관이 라는자는 《에방정전》을 떠벌였고 1950년 2월 미국방장관은 《미국은 당장이라도 공산주의를 격멸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전쟁분위기는 남조선에서도 고조되어 갔다. 남조선에서는 후방 《안건》 책동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할것을 목적으로 한 《북벌》소동이 광범적으로 벌어졌다.

미제의 조종밑에 감행된 남조선과 피외도당의 《북벌》소동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도발전조작음모였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 전지역에서는 살벌한 전쟁분위기가 떠벌어졌다.

1949년 8월 미국신문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남조선군대에 로폭적으로 복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남조선군에 있어서 는에 떠는것은 북조선에 대한 공격의망울로써로 표명하는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연이어 실었다.

미제는 《북벌》군사전략계획을 작성하는데도 광분하였다. 미제는 조선

전쟁준비계획에 따라 1946년 12월 맥아더를 미국동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극동군을 편성하였으며 그의 지휘밑에 조선전쟁을 포함한 새로운 세계대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작성완성하였다.

1950년 6월 조선전쟁발발 직후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고 피외군본부에서 압수하여 공개한 《북벌》군사행동계획은 1945년에 미군지도인쇄소에서 발행된 조선지도우에 그려져있었다. 거기에는 적들이 38°선에서의 정면돌파와 결합하여 조선서해안의 한천과 조선동해안의 하남리의 동서방향으로 상륙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허리》를 찌르고 일거에 평양, 원산건설을 점령한 다음 압록강, 두만강계선으로 공격성공을 확대하려는 작전적지도가 반영되어있었다. 또한 《북벌》을 위한 모든 지상장비와 해상작전들을 미공군의 지원밑에 수행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미제는 이러한 《북벌》계획과 함께 1949년 6월에 남조선에 외인 미고위급장교들의 가족을 비롯한 미국민들을 《유사시》에 철수시키기 위한 계획도 미리 짜놓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공화국경비대의 강력한 자위적반격에 의하여 《북벌》계획시도가 결말이나 실패하게 되자 미제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 남조선주둔 미군사교관단장 로버트, 피외군고위장교들, 전 일선 참모성원인 등에게 1949년말부터 1950년초에 걸쳐 조선전쟁도발계획을 수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전쟁을 일으킨 즉시 미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정도의 외교적모략과 첩보공작계획 등이 반영되어 수정완성된 조선전쟁도발계획은 1950년 4월 미국국가안보장회의에서 토의비준되었다. 한편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을 앞두고 1940년대말부터 비밀리에 연구해

오던 세계제국전략을 반영한 극비문건인 《NSC-68》계획을 1950년대초에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1964년 4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의하여 폭로되었다. 이 문건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과 중추국가군대까지 투입한다는것이 반영되어있었다.

미제는 1950년에 들어서서 조선전쟁도발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그에 따라 전쟁에 대처할 미국의 전략계획까지 면밀히 짜놓았다. 뒤이어 미제는 곧바로 조선전쟁도발에로 육박하였다.

한편 미제는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당시 남조선에서 《군군조직법》에 따라 전쟁도발직전까지 10여만명의 남조선피외현역무력과 20여만명의 달하는 예비병력이 준비된 사실, 미국의 군사비지출이 1947년에 비해 전쟁발발당시에는 큰 100억 US\$나 늘어난 사실 등을 놓고보아도 미제가 남조선피외도당과 작당하여 조선전쟁준비책동에 얼마나 광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에 저들의 중추국가군대들을 투입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중추국가와 쌍무적군사협정체계를 다그치기 위해 발광하였다.

모든 사실들은 조선전쟁은 미제에 의하여 사전에 면밀히 작성추진된 도발계획과 준비에 기초하여 일어났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불을 붙이는 부나미는 불에 타죽기만이라고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모지름을 쓸기어 아니라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고 력사의 쓰라린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신 경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체사상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전당과 전 인민을 사상의지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정치를 강화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씨야신문 《세르브 이폴로트》 제 6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당 및 국가지도자, 세계정치지도자로서의 완벽한 자질을 소유하시는데 대하여서와 그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이 무적의 장군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셔고 승리를 떨쳐내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네팔신문 《제르짜》 7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오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에서는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면서 세인들이 놀라워하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조선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공하고 주체생체계를 완성하였으며 CNC공작기계들이 대량생산되고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등 새로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있다.

사상과 신념의 강자라면 조선인민은 어떤 강대국을 만나도 이들에게서 두려움의 일도 없다.

그 기치아래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이 나라 신문 《노야 코프브라》 4일부는 《불패의 조

성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정치를 강화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디아신문 《사이언스 테크놀러지 앤드 에듀케이션 뉴스》 9일부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을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 당인임을 소개하였다.

같은 날 이 나라 신문 《크리쉬나 에버라》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리정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로부터 10년간 평양에서의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는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조선의 통일운동은 미제와 남조선제국주의들의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엄중된 시련을 겪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6.15 통일선언의 궁극적인 결실들을 뒤엎고있다.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선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조선민족의 리정교이다.

그 기치아래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은 그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도 짓부셔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로씨야 단체 성명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가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남조선피외들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마을, 산천을 무참히 파괴하였다.

천체적 군사전략가 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참패를 안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가말하였던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며 오늘도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외들이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광범적으로 벌이고있는 침략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나이지리아대통령 콜라크 에 벨레 총사이가 17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사회적안정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발전에 대해

유엔의 대이란제재결의 규탄

이탈리아공화회의의 기우 의 동맹 총사이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에 대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유엔의 이번 결의가

## 평화적행동을 계속 벌여나갈 립장 천명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적행동을 계속 벌여나갈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유엔안보리사회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 뜻을 경솔한 처사로 략인하였다.

본사기자

## 사태를 극한점으로 끌어가는 무분별한 망동

남조선피외군의 《천안》호침몰사건 후 조선반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고있다. 누가 이런 험악한 사태를 빚어놓은가? 조선반도의 긴장확화를 통해 리득을 얻고있는것은 누구인가?

미제와 리범박역적페당은 너무나? 이 우리 공화국에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있다. 우리가 《천안》호를 침몰시킨 《범인》이라는것이다. 리범박역적페당이 제시하고 미국이 《확실하다》, 고 주장하는 《중중》들은 모두 리범박 역적의 심빙성이 부추하여 국제사회의 남침시 키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내에서와 세 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여러가지의 문물을 계속 제기하고있지만 미제와 그 하수인인 리범박역적페당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있다.

본사기자

## 미국이 범죄행위를 비난

메리코의무성이 8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범죄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미국측 경비병원들이 메리코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1명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천만부당한 행위로 략인하였다.

본사기자

## 단 평 말 기 증 상

최근 미중양군사령관 페트라루스가 미교회 상인 군사위원회성명회에서 증언하다가 기절하여 쓰러졌다. 20분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자기가 탈수증으로 어지러운감을 느껴 그랬을따름이지 난한 질문을 받아 그렇게 된것이 아니었다고 누가 묻지도 않는 소리를 하였다. 그가 제법 혼연한체 하였지만 청문회가 연기되었다고 하는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만 하다.

청문회에서 그는 미국대통령선거때 공화당후보로 출마하였었다는 사실도 부수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발언을 목청을 돋우어 탄핵하였다.

미국은 아르가니스탄을 침공한지 10년이 되어오는 지금까지도 《평정》은 고사하고 략

리안세력에게 물려주고있는 판이다.

《최외제》를 자랑하는 미군이 비정규적인 무장항쟁세력에게 얻어맞아 언제까지 맥없이 녹아나갔는가, 정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미군사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이라고 개탄하던 군부가 아르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추락하면 이 나라 정세가 평정될수 있다고 보는가. 유능한 변호사라도 이런 명백한 질문에 변명하기 어려울것이다.

질문세개가 쏟아지는 그 할나에 페트라루스는 기절하고 낙선된것이다. 그가 죽는것보다 까 무라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야말로 투중소식감이며 세상웃을 거러이다. 미국은 망신스러운 말기증상을 연출하기보다는 차라리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테로전》의 막을 내리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리 현 도

## 배 격 받는 이스라엘

—루트끼에대통령 아브라함 호 굴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동결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감행된 국제인도주의의원조선반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탄핵에 대응한 이 조처에 따라 루트끼에는 관계 동결과 함께 수십억 US\$어치에 달하는 이스라엘과의 거래도 중지하며 앞으로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할것도 예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외무장 라벤 모 함마드 마르미 물리어나 나탈레가가 18일 이스라엘을

국제제판정에 끌어낼것을 주장하였다.

국제인도주의의원조선반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탄핵은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당국은 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행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십자국재위원회가 14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가자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 등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대북

쇄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그것을 국제법위반으로 략인하였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책동을 당장 견여치울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말레이시아외무장 다독 아니파오 아만 외무장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국제인도주의의원조선반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그들이 세계여론에 공명연히 도출하여 국제적의무리행을 태공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나쁜 인식을 더해 줄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국제평화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극단적인 행위도 당장 중지하며 인도주의의원조선반도를 실은 배들이 팔레스타인의 가자리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담보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시위